

주요요인 암살의 동기 및 대책에 관한 연구

이 진 문*

◇ 목 차 ◇

-
- I. 서 론
 - II. 암살의 동기 및 유형
 - III. 암살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
 - IV. 결 론
- 참고문헌
ABSTRACT
-

I. 서 론

현재 우리나라의 경호환경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취약하다고 할 수 있다.

IMF관리체제 이전 우리 사회는 전후 독일민족의 경제부흥으로 상징되는 “라인강의 기적”에 필적할 만한 “한강의 기적”을 창출한 부지런하고 근검절약하는 국민임을 자타가 공인하는 가운데 세계 선진국대열에 들어서는 날만 손꼽아 기다리던 때가 있었다.

대내적으로는 신군부의 권위적 통치체제에서 문민정부로의 평화적인 정권교체가 이루어지고 기업 및 사회 전반적으로는 “세계화”, “국제화”추세에 편승하여 기업인이든

* 전 대통령경호실 경호부장(현 중부대학교 안전경호학과 강사).

민간인이든 너나할 것 없이 해외로 눈길을 돌리던 때였다.

대외적으로는 1만불이 넘는 1인당 국민소득을 기반삼아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지위를 높여가며 아프리카 내전지역에 UN 평화유지군을 파견하고, 우월적인 대북자세로 굶주리는 북한 동포를 돕는다는 명목으로 쌀을 무상으로 제공하기도 하였으며, 마침내는 선진국 진입의 조건인 OECD(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 Development)에 가입함으로써 檀君 開國 이래 처음으로 국가의 中興期라고까지 자부하였다.

그러나 문명정부 말기 각종 이권관련 정치인 및 경제인들의 비리소식이 뒤를 이어 각종 마스크를 장식하더니 국가신인도 하락과 함께 가용 외화부족에 따른 국가 부도 사태에 까지 직면했다는 소식을 접하고는 우리 국민은 큰 충격을 받게 되었다.

이제까지 우리가 보아오고 믿었던 우리 국력의 현주소가 거품으로 가득찬 허상이었고, 우리는 이것을 직시하지 못하고 허장성세를 부린 꼴이었던 것이다.

김대중 대통령의 “국민의 정부”가 우리나라 헌정사상 처음 야당으로서 수평적인 정권을 창출을 하게 된 것도 “IMF(International Monetary Fund) 구제금융의 관리체제로부터 하루빨리 벗어나게 해달라”는 온국민들의 염원과 성원이었기 때문이다.

다행히 현정부의 집권 1년을 바라보고 있는 현재, 각종 개혁조치의 가시적인 성과들이 나타나고 각종 경제 지표들이 예상보다 빨리 호전되어 가고 있어 어려운 민생고에 시달리고 있는 국민들은 ‘국민의 정부’가 지속적인 개혁추진을 통해 이른바 “제2의 건국”을 이룩할 수 있기를 기원하고 있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현재 ‘IMF’와 ‘국가중흥’이라는 내우외환의 절대절명의 기로에서 21세기 한국중흥의 시금석이 될 2000년 ‘ASEM’회의와 2002년 ‘World Cup’게임 등 전 세계적인 행사를 무사히, 성공적으로 치루어 내야 한다는 큰과제를 안고 있다.

이와 같이 어려운 시기에 온 국민이 힘을 모아 국난극복에 동참해야 하는 이때에 한국이 동북아에서 강대국으로의 성장을 견제, 방해하기 위해 국내외로부터의 테러 및 주요인사에 대한 암살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도 높아 경호환경이 더욱 취약해지고 있다.

우선, 국내적으로는 ‘금강산 관광’이니 ‘남북경제협력’이니 하여 겉으로는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인 “햇볕론”에 응하는 듯 화해의 제스처를 취하면서, 몇 해전 진국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동해안 무장공비 침투사건’¹⁾으로 부터 얼마전의 ‘거제도 잠수정 침투사건’²⁾에 이르기까지 각종 폭력 및 테러행위를 자행하는 북한 공산정권이 여전히 건재하고 있

1) 국방부, 군사작전과 보도 - 동해안 대침투 작전시 언론보도 내용분석 및 대응 -, 국방부, 1998, 9~21面 참조.

2) 동아일보, 1998. 12. 18일자 3면 참조.

다는 점이다. 게다가 올해는 더욱 강경한 대외 정책을 표방하고 있어서 이들의 일거수 일투족에 관심과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국제적으로는 세기말적 가치관으로 염세적이고 퇴폐적인 사고가 만연해지고 있어, 어떤 뚜렷한 명분이나 목적없이도 살인을 하고 방화, 린치를 자행하는 등 자신과는 이해관계가 없는 불특정 다수에 대해서까지도 각종 범죄가 발생되고 있다.

게다가 이데올로기 대립에 의한 냉전체제하 양극체제가 종언되고 자본주의 시장경제 논리에 의해 전세계가 이합집산을 하게 됨에 따라 앞으로의 세계 권력 구도가 어떻게 전개될 지는 쉽게 단정짓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무질서와 혼돈의 시대’에 사는 우리는 선악의 개념마저 모호한 각종 가치관, 종교, 민족간의 대립과 갈등으로, 언제 어떠한 형태로 욕구불만이 분출될 지 모르는 시한폭탄과도 같은 환경속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만에 하나, 우리가 도약의 발판으로 삼으려는 국제적인 행사에서 要人이 暗殺을 한다거나 테러가 만연하는 治安의 불모지로서 한국이 낙인찍힌다면, 이후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지위는 물론, 이해 당사국과의 외교단절뿐만 아니라 심한 경우 전쟁으로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우리는 결코 이를 방관하거나 좌시해서는 안 될 일이다. 고대 병서에서는 “한번 실수는 兵家之常事”라고 하여 관대함을 나타내나 경호에 있어서 한 번 실수는 사고와 직결됨으로 절대 용납되지 못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문헌연구 및 실무사례 분석을 통하여 첫째, 암살에 대한 형태와 양상 및 동기 등 要人 危害戰術을 분석하고, 국내외 대표적인 요인 암살사례를 통해 문제점 발견 및 교훈들을 살펴봄으로써 차후 암살을 저지, 예방할 수 있는 범국가적인 방안들을 모색하고자 한다.

Ⅱ. 암살의 동기 및 유형

암살(assassination)³⁾에 관해서는 오늘날 학자에 따라 그 개념이 구구하지만, 여기서는 암살이란 “정치적, 종교적, 기타 각종 동기에 의해 법에 구애됨이 없이 공적인 지위

3) assassination의 어원은 Hashishin이다. Assassin은 아라비아어 Hashishin의 音譯으로서, 大摩에서 추출된 일종의 “마약을 먹는 사람”이라는 뜻이다.

에 있는 사람을 죽이는 것”⁴⁾과 “정치적·사상적 입장의 상이, 대립에 유래되는 동기에서 일정한 정치적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살해하는 일”⁵⁾이라고 정의하도록 한다.

암살은 비합법적인 행동이지만, 정치권력과 정치세력관계를 둘러싸고 사회라든가 국가 또는 정의의 명분 아래, 좌파세력의 신장·강화와 대항세력의 몰락·후퇴를 의도하여 살인을 행하는 점에서 보통 형사사건인 살인과는 다르다.

제정 러시아, 바이마르 독일, 戰前의 일본, 중남미 제국 등과 같이 정치적으로 불안한 나라에 암살이 많고, 또 강력한 독재국가에서는 독재자 타도의 가장 유효한 방법으로 쓰여지기도 한다. 정치는 항상 비합리적인 요소를 내포하고 있고, 또 그것이 인간에 의하여 행해지는 이상 암살은 지구상에서 근절되기가 어렵다.

암살 통계를 분석해 볼 때 지금까지 암살기도 중 약 50%정도가 암살에 성공했다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실질적인 의미에서의 경호대책이 강구되지 않았던 당시의 암살 성공률이 훨씬 더 높았다는 것이다.

예로써, 미국에 있어서 대통령에 대한 실질적인 경호가 행해지지 않았던 1801년에서 1901년까지의 기간동안 총 4차례의 암살기도가 있었는데, 그 중 3건이 성공할 수 있었다.

그러나, 대통령에 대한 경호가 행해진 1901년 이후부터 현재까지는 암살기도 중 거의 80%가 실패로 돌아갔다.⁶⁾

1. 암살의 동기

암살은 사실상 복잡하고 다양한 이유로 해서 발생하게 되며, 그 동기도 또한 일정하지 않고 여러 가지 다양한 동기가 상호 중첩된 경우도 있다.

암살의 동기를 부여하는 몇가지 요소를 살펴보면 대체로 다음과 같다.

4) 盧完永, 한국에서의 테러가능성과 對應方案에 관한 研究, 건국대 行政大學院 碩士學位 論文, 1989, 9面.

5) 李鍾基, vip중앙대백과, 중앙일보사, 1998, 1214面.

6) 미국의 경우 1865년 에이브라함 링컨, 1901년 윌리엄 맥킨리, 1021년 테오돌 루즈벨트, 1933년 프랭클린 디 루즈벨트, 1950년 해리 에스 트루먼, 1963년 존 에프 케네디, 1975년 포오드, 1981년 로널드 윌리엄 레이건 등에 대한 암살 또는 암살 미수 사건이 발생하였다(治安本部 治安企劃官室 研究發展課, 미국경찰, 1988, 565面).

가. 개인적인 동기

어떤 경우의 암살은 순전히 개인적인 충동에 의해서 일어난다. 피암살자에 대한 원한, 시기심, 증오감 및 복수심으로 암살을 하기도 하고, 피암살자와는 전혀 관계없이 범인의 심리적 욕구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방편으로 암살이 일어난다.

예로써 “제임스 A 가필드” 미국대통령 암살사건과 영국 수상 “스펜서 퍼시벌” 암살 사건을 들 수 있다.

전자의 경우, 암살범 “찰스기토”는 그가 자발적으로 선거 연설을 하였다고 하면서 그 대가로 파리주재 영사로 임명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1881년에 “제임스 A 가필드” 대통령을 암살하였다. 후자의 경우 암살범은 자기가 부당한 대우를 받았으며 수상이 자기의 사정을 들어주지 않았다고 하여 암살을 결행하였다.

나. 이념적·사상적 동기

어떤 암살 기도자들은 암살 대상자가 자신들의 중요한 사상이나 이념에 방해를 하고 있다고 확신하는 경우에 암살을 시도한다.

예로써 미국대통령 링컨은 John Wilkes Booth에 의해서 암살을 당했는데, 이는 Booth가 남부에서 추구하고 있는 사상을 강렬하게 신봉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다.

우리나라에서도 1947년 북으로부터 월남하여 ‘여운형’을 암살한 비밀결사대원 ‘한지근’ 경우가 예가 될 수 있다.

남한에서 민족을 분열시키는 장본인들이 ‘여운형’과 ‘박헌영’이라고 판단한 ‘한지근’은 ‘여운형’을 암살하였다.

이외에도 국제적 테러집단이나 테러리스트에 의한 각종 테러행위도 그 예로 들 수 있으며 아직까지 그 사례는 없으나 급진 좌경 운동권 학생들에 의한 암살기도가 있게 된다면, 그 동기적 구분은 이 범주에 속할 것이다.

다. 정치적·혁명적 동기

현존 정부를 전복시키고 새로운 정부를 세우겠다는 정치적 야심에 빠져 있는 개인이나 집단이 현존 정부의 수뇌를 제거함으로써 혁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암살을 기도하는 경우도 있다.

예로써, 1985년 ‘돌라잔만론’ 대령에 의한 ‘도우’ 라이베리아 국가원수 암살기도나 필라우 공화국 대통령 암살은 정치적 반대세력의 혁명적 동기에 의한 암살로서 분석될 수 있다.

우리의 경우에 있어서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에 의한 ‘박정희’ 대통령 암살도 정치적·혁명적 동기로 간주되어야 할 것이다.

라. 심리적 동기

정신분열증(Schizophrenia), 편집병(Pararoida), 조울증(Manic Depressive Psychosis), 노인성치매(Senile Dementia), 혹은 정신적 불안정 등 정신병적 증세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 암살이 기도되는 경우도 있다.

이와 같은 심리적 동기에 의한 암살은 정신병적 증세와 기타 위에서 언급한 동기가 복합적으로 작용되어 암살이 기도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심리적 요인에 의한 암살인 경우, 수사 당국이 보는 암살동기와 암살범이 주장하는 암살동기에는 자주 차이가 있다.

암살자는 위해대상자의 행동을 암살의 이유로 들고 있으나 실제로는 암살의 요인이 심리적·정신적 요소나 기타 다른 요인으로 분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⁷⁾

앞에서 예를 든 미국대통령을 저격한 대부분의 암살범은 거의 개인적 욕구 불만과 정신적 착란증으로 암살을 기도하였던 것이다.

대부분 정치적인 암살 희생자는 그의 이름 때문이라기보다는 그의 사회적 위치나 정치적 관계 때문에 선택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만약 다른 사람이 그 정치적 직위를 차지하게 된다면 암살의 위협은 바로 그 사람에게로 넘어가는 것이다.

마. 순교자적 동기

절대적 권력을 가지고 잔인하고 포악하게 군림하는 절대적 지배자나 식민지 통치자를 제거하면 대의를 달성할 수 있다고 보고 암살을 강행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 암살범은 자신을 대의를 위한 희생자로 자처하며 더욱이 일반국민들도 그와 같은 범행을 범죄로서 보지 않고 애국적 희생심으로 찬양하게 된다.

2차 세계대전 중에 ‘히틀러’ 암살계획이 수차 있었는데 이 음모도 여기에 해당되며 특

7) 미국대통령 “제임스 A 가필드”의 암살범 “찰스기토”는 정신이상자로 요시인물의 명단에 들어있었고, 또한 링컨대통령의 암살범 “존 윌키스 부스”도 사후 감정된 결과 정신이상자로 밝혀졌다.

히 ‘안중근 의사’⁸⁾에 의한 이등박문의 암살은 대표적인 순교자적 동기에서 비롯된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

바. 적대적 동기

전쟁 중이거나 상호 적대관계에 있는 적국의 지도자를 제거함으로써 승전으로 이끌 수 있거나 사회 혼란을 조성, 전쟁발발의 호기를 포착할 수 있다는 전략적 판단하에 국가지도자에 대한 암살이 자행되기도 한다.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연합군측에서 ‘히틀러’를 암살하려는 계획을 세웠다고 하는 바 이는 이 범주에 속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표적인 경우가 북한에 의해 자행된 1968년 청와대 습격 기도 사건, 1974년 육영수여사 저격사건, 1983년 미얀마 랑군 아웅산 묘소 폭파사건 등이다.

사. 경제적 동기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민족, 특수집단, 암살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에게 영향을 미치는 악조건의 경제적 불황타개 및 금전적 보상을 위하여 희생이 지불되어야 한다는 신념에 의해 암살이 행하여진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현 IMF체제하에서 중산층의 붕괴와 빈익빈 부익부현상에 따른 사회적 가치와 부의 분배의 불균등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이른바 ‘생계형 범죄’와 ‘황금만능주의형 범죄’가 나날이 증가되는 추세에 있다.

이는 금전적 보상만 주어진다면 본인과는 전혀 이해관계가 없는 대상까지 테러 및 암살의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다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2. 암살의 유형

암살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개인적 동기형과 우국 충정형 그리고 권력장악형 및 신념 추구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8) 만주지역에서 조국의 일제 강점에 항거 독립운동을 하던 ‘안중근 의사’는 대륙침략을 꿈꾸는 일본의 선봉장인 ‘이등박문’의 만주지역 방문 정보를 획득하고 1909년 10월 만주 하얼빈역에서 은밀한 권총으로 암살하고 대한민국 독립의 당위성을 주장하였다.

가. 개인적 동기형

대체로 정신질환자나 자기과시 또는 맹목적인 영웅주의 등으로 빚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주로 美國등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총기소유가 자유롭고, 정신질환자가 많은 점 및 要人이 군중 속에 자주 노출되는 점 등이 주요한 동기가 되고 있다. 그 예로 1865년 링컨 암살, 1881년 제임스 가필드 암살, 1901년 윌리엄 맥킨리 암살, 그리고 1963년 J.F.K.암살 등의 예를 들 수 있다.

나. 우국 충정형

국가의 안위를 걱정한 나머지 암살을 하는 이른바 독재정권에 대응한 극단적인 행동 양식이라고 할 수 있다.

즉, 獨裁者는 神의 法을 어기는 자며, 따라서 신에 대한 대역죄에 상응하는 암살로 제거함이 마땅하다는 것이 암살범의 주장이다. 이러한 유형은 흔히 혁명이라는 단어로 미화시키기도 하는데, 대표적인 예로는 디엠 베트남 대통령 암살을 들 수 있다.

다. 신념 추구형

종교적 신념이나 민족주의적 극단주의자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암살로 1981년 퍼레이드 사열도중 原理主義 세력으로부터 암살당한 이집트 사다트 대통령과 1984년 인디라 간디 인도총리와 그의 장남 암살 등을 들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요인위해 행위의 주수단인 암살에 대한 정의, 암살의 동기, 유형 등을 살펴해보았다.

이어서 국내외의 대표적인 요인암살 및 테러관련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경호경비활동상의 문제점 및 교훈들을 도출하고자 한다.

Ⅲ. 암살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

1. 국내외 要人暗殺 사례

국내에서 발생한 요인암살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1974년 8·15기념식장에서 발생한 대

통령 위해 미수사건을 들 수 있다.⁹⁾

이 사건의 개요는 1974년 8월 15일 10:23경 서울시 장충동 국립극장내 8·15 광복 기념행사장에서 북측의 사주를 받은 제일교포 2세인 문세광(당시 23세, 한국청년동맹원소속, 반한단체)이 실탄 5발이 든 미제 38권총으로 대통령 암살을 기도, 미수에 그친 사건이다.

암살범 “문세광”의 침투경위 및 사건경위는 다음과 같다.

1973년 9월 재일조총련 大阪府 生野支部 정치국장에게 포섭된 문세광은 1973년 10월 대통령 위해를 위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협의한 후 1974년 5월 3大阪항에 기항중인 북괴 만경봉호에 승선하여 북괴공작원으로부터 사상교육을 받았다.

1974년 7월 18일 大阪경시청 南경찰서 高津지서에서 권총과 실탄을 절취, 조총련계 赤不動병원에 가 입원한 후 병원내 비밀아지트에서 사격훈련을 받은 후 1974년 8월 6일 관광여권을 소지하고 합법적으로 국내에 입국, 조선히otel에 투숙을 하여 사건 당일까지 서울, 청평 등지를 배회하며 관광, 음주, 연색 행각으로 소일을 하였다. 사건당일인 1974년 8월 15일, 호텔에서 불러준 M-20 포드 승용차편으로 국립극장에 도착하여 허리에 권총을 은닉한 범인은 제1통제선에서 검문검색없이 차량으로 통과한 후, 광장에서 하차하여 일반 통행문으로 입장을 하고자 하였다. 이때 비표(리본)가 없어 경호근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재일교포라고 신원을 밝힘으로써 입장이 허용되었다.

입장한 후 처음에는 로비에서 서성대다가 입장하는 대통령을 위해하려고 기회를 노렸으나, 경호원이 앞뒤에서 경호하에 입장하므로 저격 기회를 상실하였다.

범인은 뒤따라 입장하여 일층 맨 뒤의 공석에 참석, 저격 기회를 노리다가 대통령이 등단하여 경축기념사를 낭독하는 순간, 권총을 뽑으며 뛰쳐나오는 순간, 초탄은 오발되어 범인 자신의 좌측 대퇴부에 관통상을 입었다.

그러나, 마이크 소리, 카메라 플래쉬 소리, TV 방송 조명 등으로 인하여 총성을 의심하지 못하고 있었고, 범인은 총상을 입은 채 중앙통로를 따라 뛰어나와 대통령을 향해 1탄을 발사했으나 실탄은 연단의 중앙상단에 맞아 튕겨나가고, 2탄은 불발되었다. 단상 아래까지 도착한 범인은 3탄을 발사하여 영부인을 명중시켰다. 이때 앞쪽 통로변에 앉아 있던 행사참석자가 범인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뒤따라 온 경호원이 범인을 체포한 사례이다.

한편, 국외 요인암살사건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레이건”대통령 암살 기도 사건을 들 수 있다.¹⁰⁾

9) 김두현, 경호학개론, 도서출판 쟁기, 1996, 62면.

이 사건은 “레이건”대통령이 1981년 3월 30일 14시 30분경, Washington D.C “Hilton” 호텔에서 미국 노동연맹 산업별회의 산하 노조대회의 연설을 마치고 대통령 전용 출입구를 통해 호텔앞 노상으로 나와 환영하던 군중에게 답례하는 순간, 환영 군중속에 있던 존 W. 힝클리(당시 25세)라는 청년으로부터 6발의 권총사격이 가해져 레이건의 왼쪽팔에 명중되었으나, 경호원들의 우발상황에 대한 즉각 조치와 신속한 후속조치로 피경호인의 목숨을 구한 경우이다.

이 사건의 범행 동기는 다음과 같다. 범인인 힝클리는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바 있고 또한 신 나치당원으로 있다 해임된 적이 있는 자로서, 부유한 가정환경에서 자랐으나 가정의 소외, 대학중퇴, 실직 등으로 열등감에 쌓여 있었다.

그의 범행 동기는 다음과 같은 발송되지 않은 그의 편지에 잘 나타나 있다.

이 편지는 정치적 지도자를 추적하며 다니는 심리적 방황자에 관한 영화인 “Taxi Driver”에서 10대 창녀역을 맡은 “조디 포스터”라는 여배우에게 보내는 것이었다.

편지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당신과의 생활이 비록 하찮은 것이 될 지라도 당신의 사랑을 받아 평생동안 당신과 같이 살 수만 있다면 나는 즉각 레이건 암살계획을 포기할 것입니다.

나는 당신에게 솔직히 고백합니다. 내가 레이건을 암살하려고 하는 이유는 당신에게 인상을 주기 위해 더 이상 기다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그의 범행동기는 정치적 이유와 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것이다. 항상 열등감에 쌓여 있던 그는 자신이 직접 만난 적도 없는 여배우 “포스터”양에게 구애를 하였으나, 아무런 반응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심리적 보상으로 범행을 함으로써, 여배우의 관심을 얻어 욕구불만을 해소하고 자기과시로 주위의 관심을 집중시키고자 범행을 기도하였다.

그러므로 그의 범행은 미국적 암살범의 전형적 동기, 즉 개인적 동기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국내의 대표적인 요인암살사례를 통해서 암살사건의 典刑을 고찰하였고, 이제는 이 사례를 통해 드러난 경호안전 조치상의 문제점 및 교훈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2. 암살의 문제점 및 대책

우리는 먼저 8·15 “박정희” 전대통령 暗殺未遂사건사례를 통해 다음과 같은 문제점과 교훈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범인에 대한 검문검색이 철저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위해기도자가 고급승용차를 타고 행사장에 도착하므로 위해요인이 될 수 없으리라는 안일한 사고방식은 큰 오산이었다. 또한, 마지막 검문검색선인 출입문에서조차 검색을 소홀히 하여 비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재일교포”라는 말 한마디에 통과시킨 점은 매우 큰 잘못이었다.

경호임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참석자들의 편의와 경호의 완벽함은 항상 상충되기 마련이다. 그러나 후자가 우선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경호지침에 근거한 충실한 경호임무 수행을 하여야 하며, 후자는 전자에 의해서 조금도 이완되거나 타협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우리 한국인들의 관료나 주요인사에 대한 순응성과 외국인에 대한 선호감정 및 관대성은 경호경비에 있어서 종종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적인 감정은 경호임무 수행시 단연코 배제되어야 한다. 특히, 국제 정치질서가 다변화되고 국제테러조직의 테러행위가 만연하고 있는 현 시점에 있어서는 외국인이나 외국 국적을 가진 내국인이라도 언제라도 위해요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둘째, 행사장 내에서 참석자들의 불필요한 행동과 유동통제에 대한 각별한 대책이 미흡했다.

범인은 로비에서 대통령의 입장을 지켜보면서 1차 범행기회를 노렸으나 대통령 앞 뒤 경호원에 의해 대통령이 차폐되었기 때문에 다음 기회를 노리게 되었다. 그런데, 만약 범인이 권총이 아닌 수류탄과 같은 폭발물을 휴대하고 있었다면 범행은 로비에서 이루어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피경호인이 대중이 운집한 장소를 지나가는 순간은 신체의 노출과 공간적으로 군중과 근접하고 있다는 위험요소가 발생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경호란 상황발생 후 조치하는 개념보다 우발 및 비상사태를 예방하는 개념에 주안점을 두어서, 제반 예상되는 문제점을 판단하여 사전에 이의 발생을 원천봉쇄하거나 최소화하는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셋째, 상황발생시 조건 반사적인 경호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범인은 국립극장 뒷편의 좌석에서부터 23미터를 뛰어 오면서 권총을 발사했으며, 8초

가 소요되었다. 8초라는 짧지 않은 시간 동안 범인이 사격을 하며 VIP에게 근접하는 동안 주변 경호근무자들로부터 아무런 制裁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는 것은 경호의 완전한 실패를 의미하는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범인이 위해를 기도하는 동안은 그 주도권이 범인에게 있다. 이 순간 경호원측에는 마비현상이 일어나 恐慌狀態가 되며, 이러한 현상을 조건 반사적으로 극복하기 위해서는 실제상황을 가상한 많은 훈련을 쌓아야 한다.

상황발생시 경호조치에 주안을 두어야 할 점은 피경호인을 신속히 방호(Cover) 및 대피(Evacuate)시켜야 한다는 점과 범인으로부터 주도권을 빼앗고 범인에게 마비현상을 전가시켜야 한다는 점이다.

한편, “레이건”대통령 저격사건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

첫째, VIP 일정에 대한 보안노출로 공격 기회를 부여하였다는 점이다.

워싱턴에서 발행되는 조간신문 “워싱턴 포스트”지에는 매일같이 백악관에서 공식 발표하는 미국대통령 일정이 실린다. 이와 같이 대통령이 시민들과 스스럼없이 어울리는 것을 보장하는 전통을 자랑하는 미국사회는 암살범이 암살계획을 수립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출입통제 및 승하차 지점에 대한 경호경비 소홀을 들 수 있다.

VIP가 힐튼호텔을 나설 때 밖에서 대기하던 기자석에서 기자 비표 불패용자가 30여 명이나 있었다고 한다. 또한 카메라맨이 허가받지 않은 입장객인 범인 힝클리리와 말다툼을 할 정도였는데도, 그를 감시의 대상으로 삼지 않았던 것이다. 통제구역으로 설정된 지역은 모든 출입자의 비표를 확인하고 동향파악을 부단히 해야 하나, 경호상 가장 취약지점인 승하차지점에서조차 비표없이 범인이 기자석에 접근하였을 뿐만 아니라 범행을 위해 계속적인 활동을 보장했다는 것은 경호경비의 소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경호유관 기관간 협조체제 부재 및 요감시인원 체크 미비를 들 수 있다.

수년간이나 권총을 휴대하고 미국 각지를 방황했던 힝클리리에 대한 기록이 백악관 S.S에는 전혀 없었다는 점이다. 과거 정신 병력이 있었고, 1980년 10월 9일 총기소지 혐의로 “내슈빌” 공항에서 체포되어 벌금을 낼 정도로 위험한 경호 요감시인이 S.S에서 관리하는 블랙리스트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는 점은 평시 국내 범죄를 담당하고 있는 FBI가 전과사실을 즉각 백악관 S.S에 통보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넷째, 사고지역이 평시 안전구역이라는 안일한 근무태성이다.

힐튼호텔은 백악관으로부터 1.5km 지점에 위치하고, 대통령이 안전하고 빠르게 출입

할 수 있는 별도 출입구가 있고, 차도는 고층건물로부터 저격을 막을 수 있는 콘크리트 덮개가 있으며, 호텔내부에는 백악관 상설전화가 설치되어 있을 정도로 경호상 특별히 설계된 곳이어서 이런 곳에서 범행이 자행될 수 없다는 근무자들의 심리적 해이에서 온 결과라고도 할 수 있다.

비록 우리나라 경호상황과 미국의 경호상황은 다르지만, 이 저격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으로 삼아야 할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미국 수행경호원들이 보여준 민첩하고 냉철한 조건 반사적 행동을 배워야 한다. 메카디는 총성을 듣자마자 사선방향을 향해 몸을 던져 레이건대통령을 방호하다가 가슴에 총을 맞은 것은 방벽효과를 최대한 발휘한 것이며, 경호실장 제리. 파는 레이건을 방탄승용차에 급히 밀어 넣어 엎드리게 하는 기민함을 보였고, 또한 입의 피를 보고 폐 총상으로 추정, 최기병원으로 급히 후송시킨 점은 경호원들의 충분한 의무지식의 덕택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VIP 행차 보안의 절대적 보장이다.

우리나라에서는 VIP 일정은 2급 비밀로 되어 있어 철저한 보안속에서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행사 주최측에서 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세밀한 관심소홀로 VIP 일정이 누설되는 경우가 흔히 있다. 평시 환경속에서 자연스럽게 VIP를 모실 수 있도록 행사주최측은 과도한 행사준비를 지양해야 하며, 안전활동을 하는 경호경비요원도 최대한 은밀비노출 근무를 실시하여, 준비과정에서 VIP행차 보안이 누설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셋째, 경호 요감시 인원 선정 및 지속적인 관리 대책 강구이다.

우리는 주로 매 행사시를 기준하여 요감시인을 선정하고 있으나 그 대상은 주로 6·25 전쟁시 북한과의 관계를 기준으로 하여 선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미 S.S의 블랙리스트 대상속에 포함되는 범주를 보면, 정신병자 및 범죄 가담자 등이 포함된다. 따라서 우리도 사상적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정신병 이력 및 범죄전과를 고려, 요감시대상을 선정해야 할 것이다. 또한 요감시인에 대한 동향파악을 행사 임박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평시 관리가 되지 않으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한다는 점을 인식하여 평시부터 관리할 수 있는 체제를 강구해야 할 것이다.

이외에도 출입 통제책의 철저한 이행, 행사간 경호근무의 철저, 정례행사장에 대한 평시 안전활동 철저 등 제반 경호수칙이 철저히 이행되어야 한다.

IV. 결 론

지금까지 암살을 통한 요인 위해 전술에 대해 분석을 하고, 국내외 사례를 통한 경호 조치상의 문제점 및 교훈 등에 대해 알아보았다.

요인암살은 국제사회의 평화를 위협하는 정치적 폭력 수단의 하나로서 그 위협과 도전이 점차 증대하는 추세에 따라 自由와 平和를 信奉하는 세계 각국은 암살기도에 대한 응징과 봉쇄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국제 범죄 조직과의 연계로 대형화, 조직화되고 있는 국내 범죄조직에 맞서 국내 치안 활동을 강화하고 여러 가지 대테러기구를 설치하여 국제범죄 및 테러리즘에 대처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도 요인위해의 주 수단인 암살의 유형, 암살범들의 전문적인 기법과 암살 전술, 국제적인 추세 등에 능동적인 대처가 미흡한 실정으로 부단한 대비 태세와 전술능력 보완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우리에게도 아직도 넘어야 할 산들이 첩첩이 쌓여있다. 그 중의 하나가 바로 세계인의 이목이 집중되어 있는 2000년 “ASEM”회의와 2002년 “WORLD CUP”행사라고 할 수 있다.

이 세계적인 대행사들을 아무 사고 없이 잘 소화해 낸다면 우리는 이를 통한 경기회복과 국가위상제고로 다시 한 번 국가중흥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국내외 범죄 및 테러리즘에 대비한 요인암살 거부활동방안들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對범죄 및 테러리즘 정보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국내외 범죄 및 테러조직에 의한 요인암살의 사전 예방을 위해서는 정보의 교환이 선결조건이다. 범행계획과 위해기도 용의자나 테러단체 상호간의 연계관계 등에 관련된 자료는 신속히 관계국으로부터 입수하거나 제공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추어져야 할 것이다. 사전정보 내용으로는 암살범의 인적사항과 이들이 포함된 테러조직 뿐만 아니라 이들이 보유하고 있는 총기 및 폭발물 등의 종류 및 수량, 성능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국제 암살범들이 우리나라를 상대로 전개할 활동이념, 예상공격, 교육훈련 내용 등 모든 사항이 망라되어야 한다.

둘째, 공항만 출입국을 강화함으로써 신체 및 여권을 위·변조하여 입국하고자 하는 국제적 암살범들의 국내입국을 사전 차단하여야 한다.

입국심사시 입국목적은 정확하게 파악함은 물론 외국 여권의 위·변조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교육도 필요하다.

셋째, 예상되는 테러공격 대상시설이나 요인들에 대한 철저한 안전대책을 강구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예상되는 목표물의 경호나 경비상의 취약점을 발굴하여 개선·보강해야 할 것이다.

넷째, 국내의 정치적·사회적 안정을 이루어야 할 것이다.

정치적·사회적 안전기반이 흔들릴 때 북한이 기도해 온 남한의 혁명분위기를 조성해 주어 대남테러 및 요인암살기도 활동이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이다.

따라서 정치적·사회적 안정은 물론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과 안정으로 빈곤의 퇴치, 실업의 감소, 부의 공정한 재분배 등이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

參 考 文 獻

▣ 국내문헌

[단행본]

- 구광모, 테러와 국제사회, 고려원, 1982.
국가안전기획부, 세계테러 조직총람(구주 지역편), 1994.
—————, 세계테러 조직총람(아.태 지역편), 1996.
김두현, 경호학개론, 도서출판 쟁기, 1996.
김원치, 신좌파와 테러리즘 : 서독을 중심으로, 창지사, 1989.
대통령경호실, 암살사, 1978.
—————, 경호사례집, 1987.
치안본부, 세계주요테러 조직편람(외사집무자료 90-2), 1992.
치안본부 치안기획관실 연구발전과, 미국경찰, 1988.
최진태, 테러, 테러리스트 & 테러리즘, 대영문화사, 1997.

[논 문]

- 강점용, 국제테러리즘의 추세와 우리나라의 대응방안에 관한연구, 경희대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2.
고두화, 국제테러리즘의 예방과 관리에 관한 연구 : 방지정책과 국제협력을 중심으로, 단국대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3.
김두현, 남·북한의 국가원수 경호조직에 관한 연구, 한국경호경비학회, 경호경비연구 (창간호), 1998.
———, 우리나라 경호제도의 사적고찰을 통한 현행 경호행정조직의 발전방안모색, 한 국체육대 논문집 제18집, 1995.
임용순, 한국에서 테러리즘의 가능성과 그의 대처방안, 국방대학원 안보문제연연구소, 보안학술집 제2편 제1호, 1991.
한상운, 현대사회테러리즘의 사회학적 해석, 경찰대학 치안연구소, 치안논문 제5편, 1988.
안동홍, 국제테러의 위협과 대책에 관한 연구, 국민대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0.

▣ 외국문헌

- Christopher Dobson and Ronald Panyne, *The Terrorists : Their Weapons, Leaders and Tactics, Revised Edition*(New York : Facts on File, Inc.,1982).
- Laquer, Walter *The Anatomy of Terrorism, Ten Years of Terrorism*, London : Royal United Service Institute for Defense Studies, 1970.
“The Terrorism Redder” : A Historical Anthology.
- McCathy Dennis V.N with, Smith Philip W., *Protecting The President : Rufus W. Youngblood, 20years in the Secret Service, -My Life with Five Presidents-*.
- Paul Wilkinson, “Terrorism : International Dimension” in William sutteridge(ed.) *The New Terrorism* (London : Mansell Publishing Limited., 1986.
- Robert H. Kupperman and D.M, Trent, “Terrorism : Threat, Reality, Response”, Stanford : Hoover Institution Press, 1979.
- Robert P. Hoffman, “Terrorism : A Universal Definition”, Ph. D. Dissertation, Clemont Gradvate School, 1984.
- Ted Robert Gurr, “Why Men Rebel”,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70.
“Terrorism” : An International Journal 1.

ABSTRACT

A Study on Motive and Type of V.I.P. Assassination

By Lee, Jin Moon

Through the case study, this thesis suggests several methods to prevent the assassination attempt on V.I.P. by examining what makes assassin assassinate V.I.P. and analyzing various kinds of motive and type.

The paper, aiming to prevent assassination on V.I.P. consists of four chapters.

Chapter I, the introductory chapter of this thesis, describes regarding the V.I.P. protection environment surrounding our nation.

Chapter II concerns various kinds of motive and type of assassination.

Under the title "Point and Provision of Assassination", chapter III shows several example case studies on assassinations occurred in our nation and foreign countries and suggests it's points and the lesson these case studies give us. The fourth chapter concludes with a bibliography.

The conclusion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in a word as following proverb; "Providing is Preventing".